

2년간의 수험생활에 대하여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이태준님

합격수기

I. 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관세사 합격자 이태준입니다. 높아 보이기만 했던 합격생의 위치에 제가 서게 되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지도 못했고 공부에 전념할 체력도 그다지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남들 이상으로 노력하는 끈기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수험생활을 fact에 근거하여 작성해서, 앞으로 32기 33기가 될 많은 수험생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수기를 쓰고자 합니다. 수기는 1차와 2차로 나뉘며 사실상 합격 수기는 2차생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2차를 중점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II. 1 차

1. 수험생활

저는 2012년 7월 6일에 첫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는 네 과목 모두 온라인으로 들었고 기본반만 수강했습니다. 그 해 여름 7월 중순에 2박3일로 한번, 8월 중순에 2주가량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일요일 제외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 양은 강의시간 제외 6시간 정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그렇게 하다가 2학기는 학교생활과 병행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때는 공부양이 약간 들쭉날쭉하였는데 적으면 1시간 많으면 4시간정도 매일 꾸준히 하였습니다.

겨울에는 회계학만 문제풀이반을 수강하였습니다. 또 3월에는 회계학만 실강으로 최종반을 수강했고 나머지과목은 인터넷강의로 수강 하였습니다.

사실 1차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붙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 이며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1차는 붙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 관세법(85점) – 구민희 관세사님

1차관세법과 2차관세법은 약간 접근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객관식이므로 외독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빠짐없이 머릿속에 넣어 '살짝살짝' 넣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뜻인 즉슨 너무 책의내용을 정확하게 다 외우려하다가가는 깊게는 알되 넓게는 헛갈릴 수 있기 때문이며, 깊게 공부하는 것은 2차 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처럼 1차만 공부하는 기간이 길다면(6개월 이상) 깊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이론을 설렁설렁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실한 이해 하에 외독수를 늘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학교시험 공부하듯이 외독수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1차 때 공부한 지식이 2차를 시작할 때 이어지기 때문에 첫 기본이론을 확실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은 기본이론만 듣고 혼자 공부하였으며 마지막 최종모의고사만 수강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85점을 득점하였습니다.

3. 무역영어(70점) – 김용원 관세사님

사실 저는 통상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역실무관련 지식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역영어를 공부하기에 비전공자보다 수월했습니다.

무역영어는 협약의 원문이 눈에 익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모두 외우는 것은 힘들지만 최대한 많이 봐두어서 눈에 익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5지선다에서 답이 보일 겁니다.

CISG, UCP, INCOTERMS2010인 3대 협약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하며 나머지 헤이그, URC등등은 강사님이 짚어주신 부분만 확실하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저는 70점을 득점하였습니다.

4. 내국소비세법(90점) – 박OO 세무사님

내세법은 처음엔 생소해서 공부하기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제일 쉬운(?)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딱히 고난이도의 내용 없이 단순 암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렵지 않은 과목입니다. 또한 문제도 나올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독수를 늘려야 하며 빠짐없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시험에서 90점을 득점하였는데 사실 저는 다 맞은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쉽게 느껴졌으며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5. 회계학(77.5점) – 유지원 회계사님

회계학은 1차 과목 중 가장 까다로운 과목으로 꼽힙니다. 저는 처음부터 회계학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과목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관세사 공부 시작 전 1학기 때 미리 학교에서 회계원리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이는 회계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계학공부는 1차공부의 40%정도를 차지했으며 처음부터 워낙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복습을 했으며 유지원 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1, 2, 3, 4단원을 공부하면 그 다음날에 2, 3, 4, 5단원을 하고, 다음날에는 3, 4, 5, 6단원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됩니다. 특히 회계학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원가회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시험에서 원가회계를 만점을 받았으며 원가회계는 노력하면 모두 맞출 수 있을 만큼 쉽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는 9월에 인강을 들었습니다.

12월까지 기본이론만 계속 복습하였으며 1~2월에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였습니다. 3월에는 최종 모의고사 반을 유일하게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회계학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며 같은 문제라도 반복해서 풀어야 합니다. 즉 문제는 노트에 풀어야 하며 한번 푼 문제라도 (심지어 맞추었더라도) 10번 20번이고 반복해서 풀어야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객관식 회계학 문제집을 적어도 20번 이상 외독하여 풀었습니다.

회계학은 실제시험에서 77.5점을 득점하였으며 무난하게 시간 내에 다 풀고 한 번 더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6. 결

사실 1차는 12월, 3월, 4월 모의고사 때 모두 2등을 했으며 점수도 잘 나왔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쉽게 1차를 패스할 수 있었던 비결은 '1차라고 방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1차를 패스해야 2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신다면 절대 불합격되지 않을 것입니다.

III. 2차

1. 시작

저는 1차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2차는 5월 초에 개강하였으나 그 때 저는 알바중이라 시작을 못하였고 계속 돈을 벌다 5월 28일에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는 모두 인터넷 강의로 하였으며 실강은 듣지 않았습니다.

2. 관세법(68점)

(1) 강의 및 커리큘럼

제갈현근 관세사님 기본(5월말~7월중순) + 심화(7월중순~8월)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5/28부터 인터넷강의로 2차를 시작했고, 때문에 실강보다 좀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강이 5/4에 개강했기 때문에 진도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 속도를 내서 실강 진도에 맞게 들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1달 반만에 두달 과정을 수강했고, 심화반도 약 1달 반만에 수강했습니다.

9월 초 부터는 심화반까지 강의를 마치고 혼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합격수기에 따라 외독수 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천천히 이해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암기는 어차피 하려고 해도 이 시점에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9~10월에 걸쳐 2회독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1~12월에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지 않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토요일마다 만나서 50문제 및 10문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암기의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 아는데 막상 쓰려니 써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천천히 암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며 8분할하여 1회독을 하였습니다.

이시기에는 그해 1~6월까지의 모의고사 해설지를 구해서 답안 작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즉, 50문제는 대략 8페이지, 10점문제는 1페이지 반이라는 기본format을 머릿속에 영상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올 문제를 생각하며 책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2) Key - Point

관세법은 각각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각 법령에 대한 내용만을 서술해서 고득점을 받는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 하는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trend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명' 은 어떻게 할까요. 설명에는 인과관계가 뚜렷해야 합니다. 즉, ~이기 때문에 ~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파트별로 도입배경, 의의 등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갈현근 관세사님이 항상 강조하신 것처럼 설명하는 답안은 폭넓은 이해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전까지 이러한 '이해작업' 이 필수인 것입니다. 절대! 대충 알 것 같다고 페이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만큼 쉽게 머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모의고사 전까지는 '확실히' 넓고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심화강의를 모두마치고 모의고사 전까지 천천히 3회독을 한 것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까지 마세요. 천천히 본다고 빨리 보는 사람보다 느린 것이 아닙니다!

(3) 목차노트

제 수험기간 내내 저를 심적으로 압박했던 것이 바로 이 목차노트입니다. 저는 기본강의 때 귀찮아서 목차노트를 만들지 못했고 심화 때서야 비로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전까지 책상에 넣어두고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월이 되고 모의고사를 시작하자 목차노트 생각이 나서 꺼내보았으며 다시 한 번 목차를 정리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고 공부 할 때 목차노트는 시험 직전까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기존 관세법 문제에서는 목차를 나눠서 제시하지 않고 예를 들어 ‘입항전수 입신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같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목차노트를 활용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엔 10점 문제에서는 목차를 주어주는 것이 trend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목차노트가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목차노트를 잘 이용해서 고득점 받은 합격생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50점 문제에서는 대목차만 주어주기 때문에 그 밑 소목차를 생각하면 목차노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4월 들어서 조금한 마음에 HS호의용어 외우듯이 책의 파트별로 목차를 중요한 부분(예를 들어 분할납부)을 앞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4) 실제시험

저는 실제시험에서 관세법을 68점을 득점하여 4과목중 가장 높은점수를 받았습니다.

50점문제로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저는 I.서, II.부과 대상, III.부과절차, IV.부과금액결정, V.미납시조치사항의 차이점, VI.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 VII.결 이렇게 7개로 대목차를 잡았습니다. 사실 시험지를 받고 목차를 나누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가산금/가산세/과징금/신의성실 원칙과 관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답안작성하기 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목차가 나뉘어서 출제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 서에는 대략적으로 관세법에 대한 법령위반에 대한 가산금 가산세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서술하였습니다.

- 부과대상에는 각각의 부과되는 대상으로 가산금은 제납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은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축약된 설명입니다.) 이때 책에서 가산금 가산세의 의의 부분에 있는 말을 잘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부과절차에는 각각이 어떤 절차로 부과되는지, 즉 가산금은 제납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 없다고 서술하였습니다.(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의의 부분을 활용하여 최대한 설명하였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달리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한 것을 작성하였고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과징금도 특허보세구역 과징금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등 의 과징금 부과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부과금액결정에는 가산금은 제납된 세금의 3%, 증가산금은 1.2%가 부과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가산세는 각 가산세마다 다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과징금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한도로 1일당 30만원씩 정지 기간만큼 부과되는 것을 서술하였습니다. (오래되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납시조치사항에는 가산금/가산세/과징금이 각각이 미납되었을 때 세관장의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는 일단 신의성실원칙에 대해 상술하고 두 번째 소목차에 가산금 가산세 과징금제도와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를 상술하였습니다. 사실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해서 기본적인 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론을 쓰고 시계를 보니 55분이 지나있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때부터는 글씨체를 생각하지 않고 막 휘갈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2번 문제는 기납증문제였는데 최대한 서술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의의에서 왜 이것이 기납증인지를 서술하고 발급절차와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나름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번 문제는 간이세율문제였는데 납세의무자가 원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관세와 부가세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세율을 적용받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작성하였고 합의세율을 대략 설명하고 둘의 차이는 사후에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차이에 대해서만 작성했습니다.

4번 문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였는데 원산지 규정의 입법목적은 모의고사 때 봐온 도입배경을 생각하여 작성하였고 허위표시 통관제한규정, 환적제한 규정을 약술하고 원산지 판단기준은 잘 몰라서 허위표시 통관제한규정은 대외무역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환적제한규정은 특별법우선 주의에 따라 관세법이 적용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 아는 대로 서술하였습니다.

5번 문제는 분할납부제도의 입법취지를 2가지 경우 (정책적, 천재지변)으로 나눠 한번에 서술하였고 대상은 아주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요건은 정책적 목적의 분할납부제도에서 1,5번 경우의 시설자본재와 중소기업 분할납부 요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요약해서 작성하였습니다. 5번 문제는 제가 너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작성하느라 체계적으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약 1페이지정도만 작성하였으며 2번 목적지는 정말 요약해서 짧게 작성하였습니다.

6번 문제는 비밀유지규정 문제였는데 이미 모의고사로 다루었던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있게 보던 문제라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때도 10점을 받았던 문제여서 막힘없이 서술하였습니다.

3. HS(67점 득점)

(1) 강의 및 커리큘럼

조현희 관세사님 기본강의(5월말~7월중순)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습니다.

HS는 과목 특성상 세부적인 이해보다는 주와 통칙, 호의용어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화를 듣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에 강의를 끝나고 11월에 스테디를 하기 전까지 3회독 정도를 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암기식을 만들어 책에 옮겨 적었으며 암기식대로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스테디 때는 주 규정을 정확하게 적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해서는 모의고사 범위에 따라 공부를 하였으며 거의 법령집 위주로 봤습니다.

(2) 정확한 암기

저는 처음에 주 규정을 외울 때 정확히 외우려고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목차를 나눠서 외웠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수강하면서 정확한 암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토씨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정확한 주 규정과 통칙암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암기식

9월부터 암기식을 만들기 시작하여 11월 전까지는 거의 모든 호의용어 암기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52,54,55류는 호의용어 암기식을 만들기 까다로워서 4월 까지도 암기식을 만들지 못했지만 5월 들어서 암기식을 만들어 외웠고 시험 전에 다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식은 호의용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 규정암기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부 비금속에서 봉, 선, 프로파일 등의 주 규정을 암기할 때 ‘압코그중원이형주다, 압코그봉주이형’ 이런식으로 문단마다 끊어서 암기식을 만들어 쉽게 숙지하였습니다.

암기식을 만들 때는 ‘강렬한인상’ 을 줄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여기에 적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강렬하고 극단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외우셔야 빠르게 숙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부범위

HS는 통칙과 주 규정, 호의용어를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증칙과 상품학은 나중엔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해설서는 중요한 부분만 포스트잇에 적어 법령집에 붙여 놓았고 통칙관련 해설서는 정확히 암기하였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해서는 거의 법령집만 숙지하였으며 5월부터는 중요한 규정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하에 별표와 세모 친 것 위주로만 확실하게 암기하였습니다. HS는 다 가져가려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공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시험도 해설서 관련 답안은 거의 작성하지 않았으면서도 고득점을 받은 것을 보면 역시 HS는 통칙, 주 규정, 호의용어중심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범위를 잘 조절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 실제시험

실제시험에서 저는 67점을 득점하였습니다. 시험장을 나올 때 가장 느낌이 좋은 과목이 HS였으며 4과목 중 가장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관세법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그 예상은 틀렸지만 어느 정도 예상대로 높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50점문제로 주 규정과 해설서내용, 통칙, 호의용어를 묻는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해설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정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통칙을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통칙을 정확하게 서술한

후 해당통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하였습니다.

10점문제로 해설서지식을 물어보던 2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제 생각엔 10점짜리에서 높은 배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4. 관세평가(47.5점 득점)

(1) 강의 및 커리큘럼

김00관세사님 기본(5월말~7월중순) + 심화(7월말~9월초)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습니다.

다양한 case를 배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심화과정까지 수강하였으며 모의고사 전까지 김00관세사님 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11월 스터디 때는 확인수수료, 구매자의 자기계산등 주요 issue를 중심으로 답안작성연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에 들어가서는 김병수관세사님의 스타일이 김00관세사님과 확연히 달라서 처음에 조금 방향을 하다 강평을 듣고 꾸준히 복습하여 4월정도 부터는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2) 법령암기의 중요성

흔히 관세평가는 case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법령암기가 선행되어야 사례를 보았을 때 정확한 법령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문제가 나왔을 때 규정위주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는 썰을 풀어야 하는 과목인데 썰을 규정을 중심으로 풀어야 조금 더 채점자의 입맛(?)에 맞는 답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강평복습

모의고사가 시작하면 매주 시험이 끝나고 강평이 올라옵니다. 보통 시험을 보고 강평까지 보는 것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강평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관세평가는 다른 과목보다 강평이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강평을 통해 강사님이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무엇인지, 이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복습을 하여야 합니다.

전 김병수관세사님의 모의고사 출제 스타일이 처음에는 생소하여 2~3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꾸준히 강평을 듣고 복습하여 김병수관세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는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4) 협정

협정은 관세평가를 공부할 때 가장 공부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해 시험으로 그러한 의문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재점평에서 협정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대놓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협정은 관세법과 겹치는 부분은 버리되, 겹치지 않는 협정에만 있는 내용은 숙지가 필요합니다.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법령처럼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시험

실제시험에서 47.5점을 득점하였습니다.

50문제의 답을 틀렸고 10점문제 에서도 일괄거래문제와 개별소비세문제에서 정확한 답안을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3번의 임차관련문제도 당황하다보니 답안 작성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평가에서 저는 과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결과에 자신이 없었고 이는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점수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맨 처음 50점문제가 긴 것에 당황을 하였고 50점 문제에 55분이나 투자하여 10점 문제에 집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답안작성을 하셔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5. 무역실무(57.5점 득점)

(1) 강의 및 커리큘럼

최00관세사님 기본(5월말~7월초) + 심화(7월중순~9월초)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대외/외환은 최00관세사님 강의를 9월말~ 10월에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통상학과에 재학중으로 기본적인 무역관련 지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역실무를 공부하는데 비전공자에 비해 수월했습니다. 또한 무역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면 무역실무는 2차 과목 중 처음에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시험가짜이 되면 무역실무는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외/외환의 존재와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는 범위의 광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화과정 후 11월 전까지는 이해를 중심으로 천천히 2회독 정도 하였으며 11월에 스테디를 할 때는 8분할을 하여 암기를 하였습니다. 암기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해와 암기를 같이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해서도 범위에 따라 외독을 하였으며 전 범위가 되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2주를 하고 한주는 안보는 부분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2) 대외/외환

저는 대외/외환은 무역실무와 별도로 매일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합격수기에 따라 하루 1시간씩 30분씩 할당하여 대외/외환을 공부하였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여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무역실무는 보통 마지막에 공부하는데 그때까지 미룬다면 굉장히 공부하기 귀찮을 것입니다.

또한 최00강사님이 만들어 주신 암기식을 활용하여 주요 내용을 암기하였습니다. 대외/외환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암기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히 외국환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바로 복습을 하여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폭넓은 공부

무역실무는 바다와 같이 범위가 넓은 과목이기 때문에 한파트 한파트 깊은 이해를 하며 암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넓은 범위 중 어느 곳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skip하지 마시고 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문제에서도 몬트리올 협정을 항공운송이라 하여 skip하시는 분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항상 10점은 까진다는 생각으로 넓게 보셔야 합니다. 외국환을 못 쓰고 10점짜리도 한 두개 제대로 모르는 것이 나온다면 고득점은 어렵습니다.

(4) 실제시험

실제시험에서 57.5점을 득점하였습니다.

50점문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심이 나와서 당황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천천히 작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도를 작성한 후 10점문제를 작성하였으며 10점문제도 잘 아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조정을 마지막에 제대로 보지 않아 약간 엉성하게 작성하였으며 외국환거래법은 거의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IV. 수험생활 Tip

1. 공부시간

아마 수험생활 중 끝까지 딜레마가 공부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12월까지의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1까지 공부하는 생활을 반복하였으며 토요일은 설렁설렁 6시간정도? 공부하였고 일요일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에 한번쯤은 친구들과 만나 놀았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되서는 1~4월까지의 스태워치로 12시간을 공부하였으며 5~6월에는 13~14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공부 스케줄은 12시간씩 공부할 때는 대략 아침 9시에서 밤 11시 20분까지 공부하였으며 스태워치로 30분 / 2시간 / 30분 / 2시간 30분 / 3시간을 각각 대외및외환/관세평가/ 환급특례법/ 관세법/ 무역실무를 공부하였습니다. 13시간씩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때 성적이 잘 안 나온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량을 늘렸습니다. 나중에는 관세법에 시간을 더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되어서는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보고 강평을 일요일에 듣고 주말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평일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고시공부는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적어도 평일만큼은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셔야 합격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2. 모의고사 등수

저는 모의고사가 시작될 때 구체적인 등수 목표를 정하여 달력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주가 지나고 성적이 나올 때 마다 달력에 표시하여 의욕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은 30등이내 3~4월은 10등이내 5~6월은 5등이내가 목표였는데 거의 이루었습니다.

1~2월은 8~26등을 맴돌았으며 3~4월은 3~8등, 5월은 1~5등, 6월은 5등정도를 하였습니다. 매달 학원에서 등수에 따라 장학금을 주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려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의고사가 시작될 때 매달마다 미리 목표를 정하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휴식시간

앞서 설명했듯이 모의고사 중에는 평일만 공부하고 주말은 거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일에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되 실 틈을 마련하고 규칙적인 공부를 하십시오. 대신 쉬는 날은 매번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일요일에는 확실한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도 가볍게 만났습니다.

4. 휴대폰

저는 12월부터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공부하는데 큰 적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하여 옆에 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기 때문에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와서 살짝 만지고 잠에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면 처음에는 자꾸 핸드폰생각이 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한 달, 두 달 지나다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는 주말만 핸드폰을 하루 종일 만지게 되니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됩니다.

5. 마음가짐

수험생활을 시작하면 일상적인 생활은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공부가 일상이며 내 직업이고 취미이자 특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 시간의 우선순위는 공부가 되어야 하며 자기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날은 하루를 정하여 그날만 만나셔야 하며 정해진 공부시간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공부시간을 빼고 놀다 보면 습관이 들어서 계속 빼게 됩니다.

2015년 달력이 나오면 1~6월까지 달력에 구체적인 목표등수를 적으시고 매주 실제 등수와 매달 평균등수를 적으십시오. 또한 시험 날과 합격자 발표 날에 구체적인 표시를 하십시오. 저는 ‘결전의 날/ 오늘부터 관세사 ‘ 라고 적어 마음이 헤이해질 때마다 달력을 보며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올 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올 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정말 그렇게 됩니다. 배수진을 치고 공부하십시오. 수험생활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6. 공부장소

저는 집근처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 열람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독서실은 너무 폐쇄적이고 매달 돈도 들기 때문에 대학교 열람실이 가장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또한 제 학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눈치 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밥도 학식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7. 경제적인 문제

저는 수험생활 동안 집에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원비도 대주시는데 용돈까지 받는 것이 싫었고 대신 하루에 5천원씩 밥값을 받았습니다. 5천원을 받아 1500~2000원으로 점심을 해결하였고 3000원으로 저녁을 해결하였습니다. 일요일에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여 한 달에 2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 휴대폰비도 제가 냈기 때문에 수험생활 동안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저를 놀지 못하게 하였고 더욱더 공부에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5천원은 하루공부를 하기에 최소한의 돈이며 '절대' 놀 수 없는 돈이니까요.

만일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수험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것도 좋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놀지도 않게 되니까요. 다만 밥값정도는 용돈을 받거나 저저렴 주말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식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8. 슬럼프

저는 공부기간 중에 특별히 슬럼프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슬럼프는 남과 비교하여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공부하는데 누구는 취업하고, 즐겁게 놀고.. 적어도 저보다는 행복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부디 생각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한 이상 우리는 공부가 직업이고, 친구이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 번 공부하는 것이 싫어지면 쉽게 돌이키기 힘듭니다.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수험기간동안은 바짝 옆드려서 공부하십시오. 분명히 보답은 배가 될 것입니다.

9. 스터디

저는 11~12월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스터디라는

것에 놀게 될까봐 반신반의 했지만 막상 해보니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암기한 것을 모의고사 전에 미리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로 스테디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스테디를 하시려면 미리 기간과 범위를 정하고 확실히 규칙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스테디를 해서 잘 된 경우도 있지만 독이 된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V. 마지막 말

시험이 끝나고 발표 전까지 제가 했던 생각은 ‘나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으며 떨어졌어도 제 노력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합격수기라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많이 공부하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물며 나도 합격했는데 누군들 합격하지 못하겠는가.’ 하구요. 누구든 31기 합격생 분들 중에 저만큼 노력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 합격수기를 읽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힘이 들 때는 나를 위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도 절대 쳐져서는 안 됩니다.

이상 제 부족한 합격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쓰다 보니 다소 두서없기 쓰인 것 같아 사과드리며 부디 수험생 분들이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1기 관세사합격자 이태준